



# 부산신항 화물 · 고속터미널 있어야 활성화

## 박승환 의원 부산신항 활성화대책 토론회 개최

1만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대 부산 신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을 유치할 수 있는 화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고속 터미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창호 기획실장은 국회 동북아해양물류연구회(대표 박승환 국회의원) 정기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고 1만2,000~1만5,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기 위해서는 선박당 최소 3,000TEU급 이상의 화물을 양적하해야 하지만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6,000TEU급 컨선의 경우 적당 최대 1,500TEU에 불과함으로 초대형선의 기항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컨테이너 화물을 2배이상 증대시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창호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항만배후 물류단지의 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수출입 물동량을 증대시키고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적화물 증대를 위해서는 다시 초대형 선사에게 국내 전용터미널을 제공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환적항을 개발해 동북아 피더 운송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컨테이너화물창출과 함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재항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용량 고속하역 항만을 개발해야만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부산감만컨테이너터미널 강현구 이사과 동아대학교 김재중 교수도 예상보다 2~3년 정도 빠르게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재 개발중인 부산신항에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양원 본부장은 신기술 개발이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부산항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부산항은 물동량 증대에만 역점을 두면서 일본 고베항처럼 낙후된 항만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졌지만 지능형자동화터미널 개발과 같은 신기술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부가가치창출로 연결한다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대형화시대에 지능형 자동화터미널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능형 자동화터미널의 기술적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실용화 방안 등은 면밀히 연구·검토하고 터미널 운영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신항민(주) 관계자는 부산신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산신항과 북항간 환적화물의 셔틀 비용이 북항보다 3배나 비싸고 부산북항과 비교해 수도권에서의 내륙운송비가 5만원 가량 비싼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